

제14차 I.C.N. 총회 참석보고 (2)

<대한간호협회장> 홍 신 영

Montreal에서 총회 일정이 끝난 후 1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회원수가 비교적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므로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일행중 이귀향, 이성욱씨 두분은 Toronto로 향하고 방수녀님도 사정이 있어 떨어지고 소속 정과장 유순한 간호과장, 필자 이렇게 셋이서 Ottawa로 갔다.

Ottawa는 Canada의 수도로 I.C.N.총회가 Montreal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보건성에서 간호사업관계 정부실무자회의를 열고 짜임새 있는 program으로 맞아 주었다. 보건행정에 관한 orientation을 비롯하여 시내관광에 이르기까지 참석자들을 위하여 세심한데까지 마음을 써준 당국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Ottawa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을 백명 학공사님의 안내로 방문하였다. 마침 백선엽대사님은 정무로 귀국 중이시고, 모든 안내를 백명 학공사님이 맡아주신 것이다.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사관의 활약상을 볼 때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 대사님 공관을 방문하여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공사님택에 가서 꾸집한 대접을 받아 그간 주렸던 한국음식을 마음껏 즐겼다.

이곳에 김기열회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주소를 몰라 백방으로 수소문하자 연락이 되어 우리가 유숙하고 있는 Tallisman Moter에 밤 12시가 넘어서 찾아왔다. 지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다. 김기열회원은 언어장애와 연령관계로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별로 힘 안들이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짜님 한분이 New York에 있어서 서로

왕래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기도 하고, 걸러오기도 하여 심심치 않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경 일회원이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더 지체할 수 없어 만나지 못하고 떠난 것이 섭섭하다.

New York으로 일행이 온것은 7월 1일이었다. 이곳이 대도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수없이 많은 비행기와 차의 질주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정경하지 못한 길거리와 많은 사람의 물결은 한층 더 어수선한 기분을 틀주었다. 여장을 Y.W.C.A.호텔에 풀고 Columbia University, Yale University,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동안 변화된 것과 진보된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New York에 있는 Overlook Hospital,에서 Exchange Program과 In-service Education에 대한 program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현재 한국간호원 세명이 Exchange Program으로 와서 있었으며, 이들이 칭찬을 들으며 일하고 있어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또 New York에서 유명한 히피촌도 구경하였는데, 너무도 다른 세계를 보아 생각이 복잡해졌었다.

우리 회원으로 이보학, 박병준, 박성화를 만나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가정을 가진 이들이 가정을 돌보며 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New York에서는 전에 세브란스병원 부원장으로 계시던 홍준식선생님이 종일 수고하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고, 여기에서 이성욱선생을 다시 만나 일행은 네 사람이 되었다.

7월 5일에 Washington D.C.에 닿았는데 유과장은 아드님 내외가 집으로 모시고 남은 일행

은 숙소를 Y.W.C.A. 로 정했다. 이인자, 손난주, 오동순, 박인순 회원을 차례로 연락해서 만나고 이들의 안내로 유서깊은 도시 주변을 갈 볼 수 있었다. Alington 국립묘지에 가서 고 케네디대통령 묘와, 고 로버트 케네디의원의 묘를 둘러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금할 수 없었다.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의 간호대학 교육과정시찰은 나의 흥미있는 과제였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다. Graduate program 을 책임지고 있는 Dr. Heidgerken 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간호원을 위한 대학교육의 시비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곳에서는 벌써 간호학박사가 나왔고, 또 많은 학생들이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참작해 볼 때 생각할 바가 없지 않을까 한다. 이지음 간호보조원문제니 조산원 단독면허문제니, 고등간호학교등을 만들어 자격을 완전히 구비못한 간호원을 배출하여 수적 증가만 꾀하고 그들에게 귀한 생명을 맡기는 우매한 일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일행중 소속정과장은 마닐라에서 열리는 간호 사업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직접 마닐라로 떠나고 이성욱선생과 필자만이 Detroit 로 떠났다. Detroit 는 1960년도에 필자가 와서 공부하던 곳으로 대강 지리는 알고 있으나 그간 변화가 많아서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았다. Y.W.C.A. 에 숙소를 정하고 연락이 되는 회원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본협회 출판부에서 수고 하던 박자영회원과 유한방회원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다 여유있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기뻐다.

하루는 필자의 모교 Wayne State University 를 방문하여 주임교수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그간 변한 모습을 여러모로 참관했다. 9년 전에는 도로가 학교에 인접해 있어 wheel chair 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길을 건느듯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볼 때마다 길을 건느게 해 주던 아름다운 정경이 있었는데 이젠 그 도로가 학교구내에 들어와 불편없이 된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었다.

Detroit 에서 친절한 taxi 운전수를 만났던 일



<Parkland Memorial Hospital 에서
베를어진 tea party 에서>

은 늘 잊혀지지 않는다. 하루저녁은 회원집으로 초대를 받아 taxi 를 타고 그주소 근방에 와서 길을 잘못들어 몇바퀴 돌게 되었는데 이때 운전수가 taxi meter 를 정지시키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잘못해서 더 가야하는 것이므로 요금을 손님에게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일면이 오늘의 부강한 미국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Detroit 에서 가까운 An Arber 에 주경순, 황복순회원이 있고 또 그곳 한인교회 목사님 부인인 정효진회원이 있어 이곳을 들리기로 하였다. 주경순회원은 6.25사변이후 이곳에 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아담한 집도 마련하고 있어 우리들 마음이 흐뭇하였다. 마침 Chicago 에 있는 길인 수회원이 이곳으로 불러와 있어 우리와 합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Ford Car Assembly 에도 가서 차가 순간순간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회사에서 지역사회 사업을 위해 많은 기금을 희사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7월 13일에 Chicago 에 왔다. 이곳은 한국간호원이 많이 있는 곳중의 하나이다. 숙소는 따로 정하고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것을 알렸더니 다음날 한국음식점 삼미정에 약 30여명이 모였다.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 냉면잔치를 벌려 한껏 이야기 꽃을 피웠다. 노민자, 서정옥, 최지숙.

조선자, 노회환 등 모두 만가운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허용해준 이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선뜻마음 내키지 않았으나 회관건축기금에 관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여 결국 염채없이 모금한 결과 즉석에서 약 500불이나 견하여 고마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시간을 이곳에서 더 지체할 수가 없어 지회조직하는 일을 준비위원회에게 일임하고 아쉬워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Dallas 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우리회원 20여명이 비행장에 마중나왔고 또 부득이 나오지 못하는 집에서는 애기와 애기 아빠가 대신 나와 너무 반갑고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었다. 섭섭했던 것은 일행 6명이 함께 가지 못하고 이성옥선생과 필자만이 가서 그런 후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곳에는 한국간호원이 근 40명이나 되고 우리회원들, 특히 한국에서 중진급간호원이 많이 근무하는 Parkland Memorial Hospital에서는 우리일행을 위하여 tea party 까지 열어주는 환대를 받았다.

회원들의 생활도 안정이 되어 거의 다 자기차를 가지고 있고,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저 고맙기만 했다. 차 한번 타려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하는 형편에 살아온 나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고 매번 누구의 차를 타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병원당국에서 tea party 까지 베풀어 우리를 환대해준 고마움과 또 한국간호원들이 다 충실히 일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는 무척이나 흐뭇했다. 모두 우리 아름다운 한복으로 성장을 하고 저마다 특기인 노래, 춤, 기악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고, 명규임 회원의 재미있는 사회에는 거기 모인 병원직원, 그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차차했다. 간호원장은 한국 silk 옷으로 성장을 하고 나왔으며 이분이 평소에도 한국간호원을 극진히 생각해 준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고맙게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여러가지 인상깊은 일중에도 특히 Country Club Dinner 에 초대받았을 때와 이곳의 유명한 유흥지인 Six Flag 에 Picnic 을 갔을 때에는 모두 등실으로 돌아가 하루를 즐길

수 있었다. 이곳을 떠나기전 Dallas 한국지회를 조직했다. 따라서 임원선출도 했고 이분들에게 회의 운영을 일임했으며 또 많은 건축기금을 회사받았다. 다시금 지면을 통해 이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Dallas 에서 예정보다도 2일을 더 머물고 바로 Los Angeles 로 떠났다.

Los Angeles 에 도착한 것은 7월 27일이었다. 서병옥, 김상점 회원을 위시하여 약 30여명의 회원들에게 푸짐한 대접을 받고 이곳서도 지회조직을 서둘렀다. 이곳에서 한국간호사업을 위하여 전 생애를 한국에서 다 바치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Miss Edna Laurence (동산병원과 세브란스 재직)와 이금전선생 두분을 방문하였다. 두분 다 고령으로 쇠약해지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곳의 명물 Hollywood Studio 를 구경하고 나니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깜박 속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 군방의 다른 유명한 곳으로는 Disney land 를 구경했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아주 넓은 곳을 잘 꾸며 놓아서 관람자들의 대열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전부 구경할 수 없었다.

Honolulu 에 들러 박태회목사님의 안내로 Hawaii 대학에 계시는 홍석기선생님을 만났고 이분의 안내로 간호대학장을 만나 학교 program 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하와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야경, 해변가의 풍치 등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구경했고 동경을 거쳐 귀국의 길에 올랐다.

이번에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회원 및 선주배들을 만나서 분에 친널 대접을 받는 한편, 큰 임무의 하나였던 회관기금 모금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일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이 일을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회원들 가록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린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뒷바침해 주신 관계당국, 간호협회 이사 및 직원 여러분과 협회 일반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